

An illustration of a hand holding a grey remote control, pointing it towards a computer monitor. The monitor screen is red and features a large white play button icon in the center. The background is a solid olive green color.

너의 생활이 궁금해

관찰예능 전성시대



관찰예능이란
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
관찰카메라 형태로 구성된
예능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
▶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- 2018년 4월 (상위 20위, 2개까지 자유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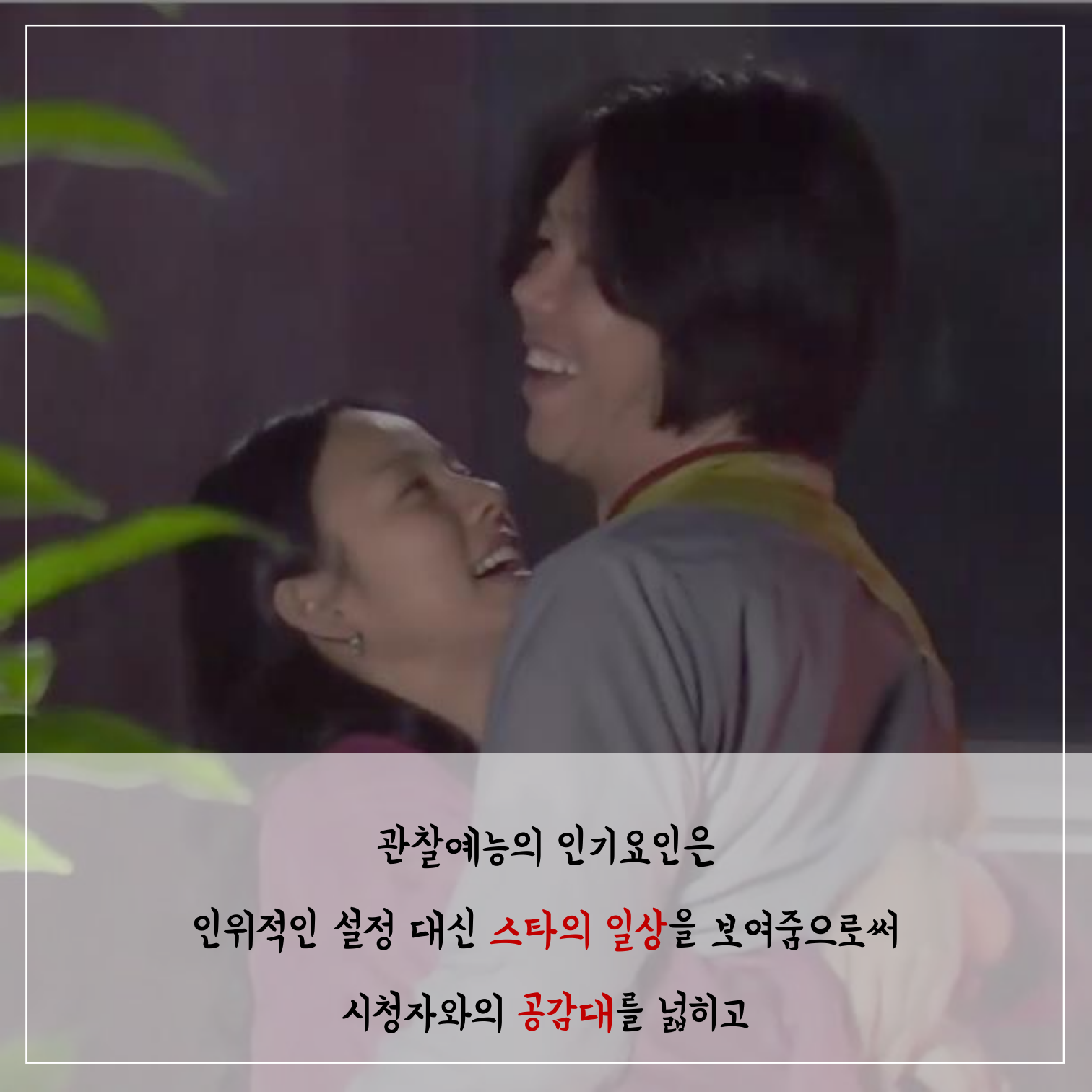
순위	프로그램명			선호도(%)	전월 순위(변동)		비고
1위	나 혼자 산다	MBC	예능	5.0	4위	(▲3)	
2위	썰전	JTBC	시사/교양	4.1	3위	(▲1)	
3위	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	JTBC	드라마	4.0	-	(신규)	3.30~ (금토)
4위	효리네 민박2	JTBC	예능	3.1	5위	(▲1)	2.4~
5위	나는 자연인이다	MBN	시사/교양	2.9	9위	(▲4)	
6위	아는 형님	JTBC	예능	2.8	10위	(▲4)	
-	미워도 사랑해	KBS1	드라마	2.8	5위	(▽1)	11.13~ (일일)
8위	같이 살래요	KBS2	드라마	2.4	-	(신규)	3.17~ (주말)
-	라이프	tvN	드라마	2.4	-	(신규)	3.10~ (주말)
-	그것이 알고 싶다	SBS	시사/교양	2.4	-	(재진입)	2월-10위
-	김어준의 블랙하우스	SBS	시사/교양	2.1	-	(▲4)	1.18~
12위	1박2일 시즌3	KBS2	예능	2.0	-	(재진입)	2월-15위
-	나의 아저씨	SBS	드라마	2.0	-	(신규)	3.21~ (수목)
14위	미운 우리 새끼	SBS	예능	1.9	13위	(▽1)	
15위	무한도전	MBC	예능	1.7	1위	(▽14)	3.31 종영
16위	전지적 참견 시점	MBC	예능	1.5	-	(신규)	3.3~
17위	런닝맨	SBS	예능	1.4	16위	(▽1)	
-	역류	MBC	드라마	1.4	-	(신규)	11.13~ (아침)
-	세계테마기행	EBS	시사/교양	1.4	14위	(▽3)	
20위	정글의 법칙	SBS	예능	1.3	-	(재진입)	12월-17위

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20위 중
4개가 관찰예능일 정도로
현재 예능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.

질문) 귀하께서 요즘 가장 즐겨보시는 'TV프로그램'은 무엇입니까?

뉴스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십시오. (2개까지 자유응답)

*2018년 4월 17~19일 전국 성인 1,003명 전화조사. 한국갤럽 www.gallup.co.kr

A photograph of a man and a woman laughing together. The man is on the right, wearing a grey shirt with a yellow and red strap over his shoulder. The woman is on the left, wearing a pink top. They are both looking up and laughing heartily. The background is dark with some green leaves visible on the left.

관찰예능의 인기요인은
인위적인 설정 대신 **스타의 일상**을 보여줌으로써
시청자와의 **공감대**를 넓히고



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**생활밀착형 소재**로
담백한 웃음을 유발 하는 것에 있습니다.

하지만 관찰예능이 급속히 늘어나고
있지만, 현재 관찰예능은 대부분
연예인의 사생활 영상을 보며

스튜디오에서 영상에 대해 이야기
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간 **차별점**은
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.

침샘쇼크

이에 대해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는

"관찰 예능'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여준다는 '틈새시장'을 노린 게

눈길을 끌며,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

이는 **한때의 유행**과 같은 것인 데다

비슷한 프로그램까지 난무해 장점을 잃어가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



따라서 방송제작자는 현재 트렌드만을 쫓기보다는

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

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.



THANK
YOU